

지역 소식통

부안군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은 부안군립도서관에서 주민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길 위의 인문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안군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1~2차 각각 5회씩 운영되며 1차 5회는 '미술의 역사를 통해 본 우리의 삶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지난 19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3시30분~5시 30분까지 목관화가 김억 작가의 부안8경을 위주로 진행된다.

2차 5회는 '부안의 충의(忠義) 정신'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같은 시간대에 지역전문가 조경호 선생님의 주산보통학교 학생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모두 10회 운영되며 인문학 강연 7회와 탐방 2회, 후속 모임 1회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신청 기간이 완료됐으나 부안군립도서관 누리집과 전화(063-580-3947)로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추석 맞이 시내 버스 승강장 대청소 추진

정읍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 대청소를 추진한다.

이번 청소 작업은 시 전역에 있는 707개 시내버스 유계승강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 광고물 제거, 묵은 때와 거미줄 청소, 승강장 지붕과 의자에 쌓인 오물과 매연 퇴적물 제거 등을 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청결한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기황새 '노을·푸름·오순·도순'

고창군, 천연기념물 아기황새 4마리 이름 명칭 공모 결과 공개

고창군에서 태어난 아기황새 4마리의 이름이 '노을·푸름·오순·도순'으로 확정됐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2024년 고창 아기황새 4마리 이름 지어주세요'의 명칭 공모 결과를 공개했다.

명칭공모는 지난 4월에 태어난 고창 아기황새 4마리의 이름을 고창과 연관된 단어로 누구나 쉽게 부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참신하고 친근한 명칭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25건의 공모작 접수됐다. 1등은 상용제씨의 '노을·푸름·오순·도순(K27~30)'이 선정됐다.

고창 아기황새 4마리는 가락지 번호 A03(부, 균형이)과 A77(모, 지황이) 사이에서 태어났다. 지난해 호남권 최초 황새 자연부화에 성공한 찬란이·행복이·활력이(G66~68)에 이어 두 번째 성공사례다.



고창군에서 태어난 아기황새 4마리의 이름이 '노을·푸름·오순·도순'으로 확정됐다.

아기황새 4마리의 이름은 아름다운 노을, 푸른 바다, 산과 함께 오순도순 정답과 의롭게 지내는 고창 사람들을 비유하는 의미를 담았다.

한편, 천연기념물인 황새는 멸종위기종 1급으로 국내에는 200여 마리의 개체가 확인되고 있으며 작년에 태어난 찬란·행복·활력은 서산 인근

에서 머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아기황새 노을·푸름·오순·도순이름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자연과 인간이 오순도순 공존하는 청정생태 관광지로 발돋움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추진

정읍시, 농산물 가격 불안정 대응·농가 소득 증대 위해

정읍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방

식으로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은 양파,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 생강,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등 8개 품목이다. 지원 면적은 품목당 1000㎡에서 1만㎡까지 가능하다. 해당 농가들은 해당 지역농협이나

통합마켓팅조직과 출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지감자, 건고추, 생강의 3개 품목은 이미 신청 접수가 완료돼 40농가, 16.7ha의 대상자가 확정됐으며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는 9월 2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많은 농가들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최저가격 보장제의 혜택을 누리기를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선수 격려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20일 저녁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앞둔 선수 훈련 현장을 찾아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20일 저녁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앞둔 선수 훈련 현장을 찾아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심덕섭 군수는 족구 출전을 위해 연습하고 있는 스포츠타운 족구장을 시작으로 탁구, 야구, 축구 전용구장, 풋살 연습장인 나들목 공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격려했다.

심덕섭 군수는 "남은 준비기간 동안 선수들이 다치지 않도록 건강을 챙기며 체력관리를 잘해달라"며 "기량을 발휘해 최선의 경기가 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고창군에서는 36개 종목에 학생부 146명, 일반부 420명 총 566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은 21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부안 수소도시 조성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 본격화

조성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갖고 추진방향·과업 수행계획 등 논의

부안군은 21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부안 수소도시 조성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착수보고회는 군을 비롯해 전북 테크노파크(TP), (주)현대건설, (주)유신 등 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자연과 인간이 오순도순 공존하는 청정생태 관광지로 발돋움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용역은 (주)현대건설과 (주)유신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수행되며 군은 오는 2025년 8월까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마스터플랜 및 세부 시설 계획 등의 수립을 완료하고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약 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의 전주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군은 2022년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119억원이 투자되는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수소도시 조성과 연계하고 풍력 및 태양광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병행해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인 청정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소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에서 생산되고 공급되는 청정에너지 수소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산업으로 수소를 통해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식품산업연구원, 고창해풍고추축제 연계 김치만들기 체험행사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사장 심덕섭 고창군수) 이하 연구원과 고창군은 오는 23~25일(3일간)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 일원에서 고창해풍고추축제와 연계하여 김치만들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창해풍고추와 절임배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고창군 해풍고추와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체험행사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고창해풍 고추가루와 절임배추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치 담그기 체험은 행사기간 동안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에 각각 진행되며, 고창 농산물과 김치의 우수

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참가자 모집은 온라인 접수(고창식품산업연구원, 063-560-5153)와 현장 접수를 통해 이뤄진다.

또한, 축제 참가자들에게 본 체험행사를 통해 고창해풍고추와 절임배추를 홍보하고,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심덕섭 이사장은 "고창해풍고추축제와 연계한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고창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고창해풍고추와 절임배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고추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